

# 세계 유산



10 조선 왕릉(2009년 등재, 한림왕)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소재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서울 시세정릉·한인릉·선정릉·태강릉·의릉, 서울 동쪽(동구릉·홍유릉·광릉·사릉·영녕릉), 서울 서쪽(서오릉·서삼릉·온릉·파주 삼릉·파주 정릉·김포 정릉·용인릉), 강원도 영월(정릉)에 나뉘어 있다.



4 창덕궁(1997년 등재, 인정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창덕궁은 태종 5년(1405)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40년(1607)에 중건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5년(1613)에 재건되었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 정궁으로 사용된 후부터 1869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258년 동안 역대 제왕이 정사를 보살피는 법궁이었다.



9 종묘(1995년 등재, 종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조선 시대 왕가의 조상을 모시는 유교 사당이다. 건축을 배치 원리에 따라 좌청룡에 해당하는 궁궐의 동쪽에 세워졌다. 부속 건축물로는 영녕전, 공신당, 침사당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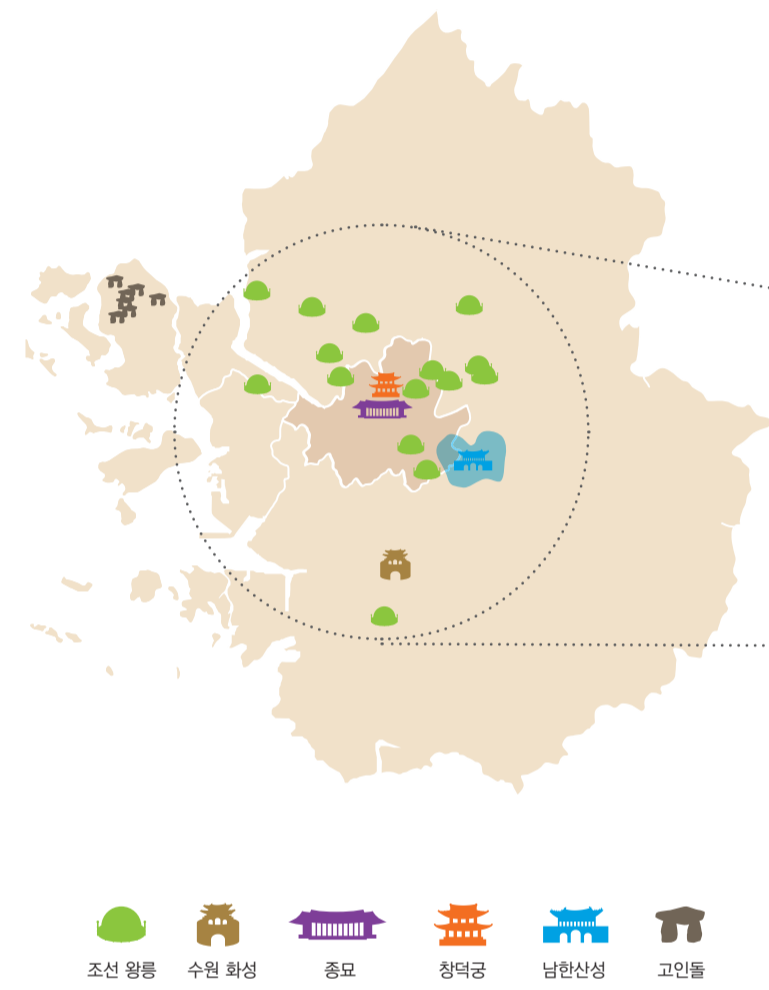


12 개성 역사 유적 지구(2013년 등재, 황건봉)  
황해남도 개성시 소재  
개성 역사 유적 지구는 고려 시대의 수도인 개성의 역사적 유적지이다. 이곳에는 개성 성곽, 개성 남대문, 개성 청성대, 민원대, 고려 성군관, 송양 사원, 선조굴, 표충사 및 황건봉, 공민왕릉, 명릉 등 7개의 능이 분포하고 있다.



8 고구려 고분군(2004년 등재, 동명왕릉)  
평안남도, 평안북도, 남포특별시, 황해남도 소재  
고구려 고분군은 고구려 시대의 무덤군이다. 637기의 무덤이 대동강 하류 양반의 넓은 벌에 걸쳐 8개 고분군을 이루고 있다. 무덤의 양식이 나뉘며 벽화는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이 함축되어 있다.

## 경기도권 세계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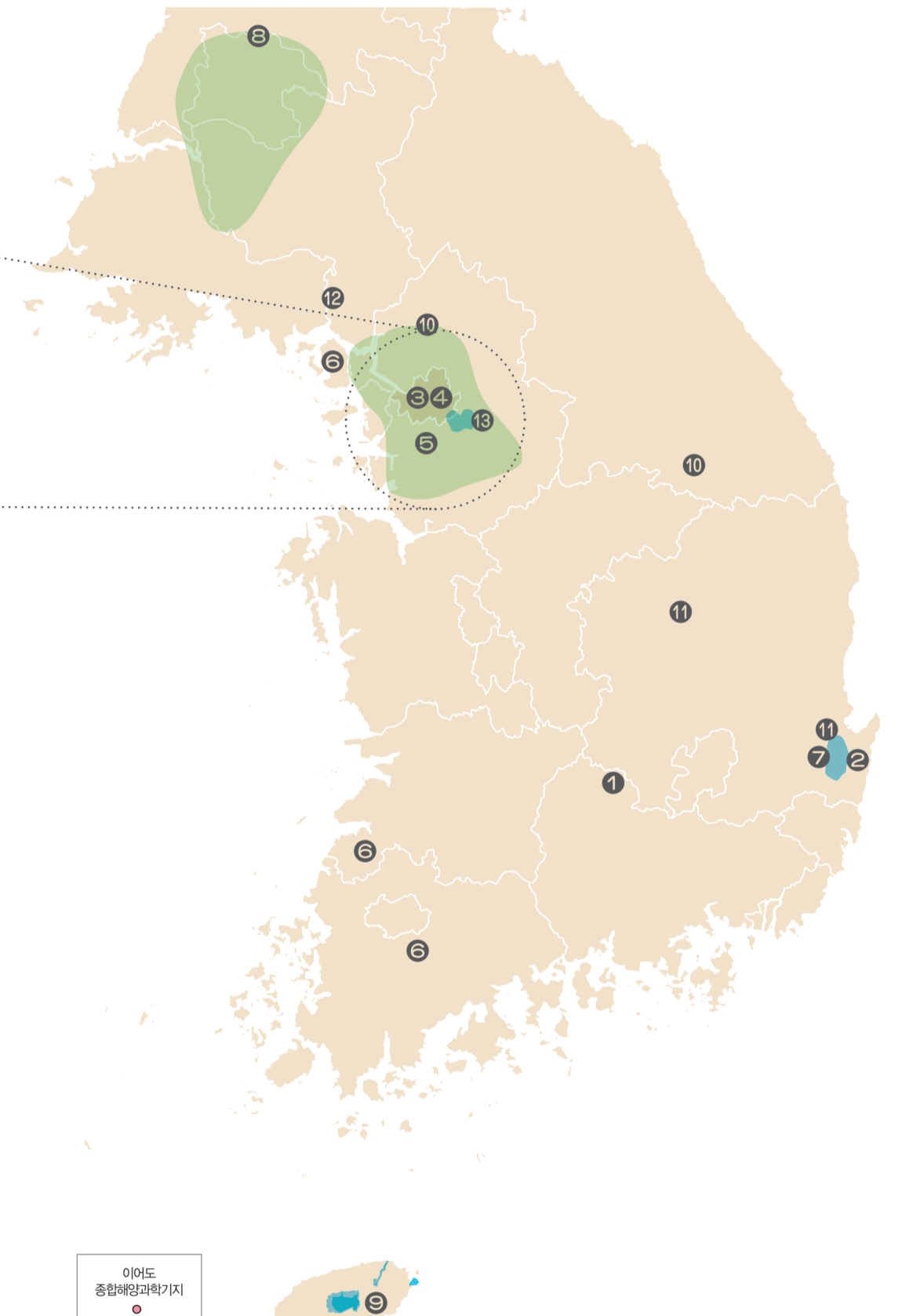


11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등재, 고창 고인돌)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인 고인돌은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또한 고인돌은 선사 시대 문화를 파악할 수 있고, 사회 구조, 정치 체계는 물론 당시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 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13 남한산성(2014년 등재, 성곽 남문)  
경기도 광주시 소재  
조선 시대의 왕도를 동쪽에서 방위하던 산성이다. 높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고 있어 방어력에 유리하다. 병자호란 때 청군의 주력 부대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다.

## 세계 유산의 위치



14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2007년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은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순상 화산체인 한라산에 지정된 세계 자연 유산이다. 이 구역에 백록담 분화구, 수많은 오름 등 다양한 화산 지형이 분포한다.



9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2007년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는 약 30만 년~40만 년 전 거문 오름으로부터 흘러 나온 용암류가 지형 경사를 따라 해안까지 흘러가는 동안 형성된 용암동굴 무리이다. 갈녕굴,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병두굴로 구성되어 있다.



11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양동(2010년 등재, 하회 마을)  
강원북도 인동시 소재  
마을 이름을 하회(河回)라 한 것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한다. 풍산 류씨가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양반과 사인의 생활이 공존하고 있으며, 민족적 전통과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13 성산 일출봉 응화구(2007년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성산 일출봉(해발 180m)은 약 5천 년 전 앞바다에서 일어난 수성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응화구이다. 이는 지하에서 올라온 마그마와 물이 만나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 형성되었다.



11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양동(2010년 등재, 양동 마을)  
강원북도 경주시 소재  
양동 마을은 팔성 손 씨와 여강 이 씨의 두 가문에 의해 형성된 유사 같은 양반 마을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수백 년 된 기와집과 나지막한 돌 담장이 어우러져, 전통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되었다.



14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등재, 정경판전 외관)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기에 만들어진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판 81권이 정을 보존하는 보고로서, 해인사의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원형한 통풍과 방습, 실내 적정 온도 유지, 판지의 진지 등 다양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고려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세계 유산이란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세계 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 유산, 복합 유산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3건의 세계 유산이 있는데,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12건, 자연 유산이 1건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은 수도권(5건)과 경상북도(3건)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1392년 조선이 개국한 이래 600여 년 동안 수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에는 왕릉, 궁궐, 유교 사당 등이 많다. 또한 수원에는 화성이, 광주에는 남한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역사 유적 지구가 있어 신라의 역사적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역사 마을인 양동 마을도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조선 시대에 화려하게 꽃피웠던 양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경상북도 안동에도 한국의 대표적 씨족 마을이면서 양반 마을인 하회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 지역에 2건(고구려 고분군, 개성 역사 유적 지구), 경상남도 1건(해인사 장경판전), 전라남·북도 1건(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특별자치도에 1건(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성산 일출봉 응화구 3개 지구로 구분된다.

세계 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덤군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무덤군에는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군, 고구려 시대의 적석총, 신라와 조선 시대의 왕릉이 포함된다. 무덤에는 당대의 세계관과 장례 전통, 계례 전통이 깃들어 있다. 무덤과 더불어 건축물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창덕궁은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건축물과 조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목조 건물인 해인사 장경판전은 실내의 통풍, 방습, 온도 등을 적절히 유지하여 대장경판을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각 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건축물과 기념물, 유적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과는 경기도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남한산성과 수원 화성은 북쪽의 개성, 서쪽의 강화와 함께 네 방위에서 왕도를 방위하던 성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축성술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전통을 간직한 역사 마을과 종묘 같은 건축물이 있다. 역사 마을인 하회 마을과 양동 마을에는 현재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사회적 구조와 유교적인 전통이 잘 반영되어 있다. 종묘에는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와 함께 왕가를 기리는례와 음악, 무용 등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자연 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있다.

등재 연도	세계 유산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세계 기록 유산
1995	14 해인사 장경판전 15 석굴암과 불국사 9 종묘		
1997	4 창덕궁 9 수원화성	16 훈민정음 17 조선왕조실록	
2000	8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7 경주 역사 유적 지구		
2001		18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19 판소리	20 직지심체요절 21 승정원일기
2003			
2004	8 고구려 고분군		
2005		22 강릉 단오제	
2007	9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23 조선왕조실록 24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9	10 조선 왕릉	25 강강술래 26 남사당놀이 27 영산재 28 제주 일리리당 영등굿 29 처용무	26 동의보감
2010	11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양동	30 가곡 31 대목장 32 배사냥	
2011		33 줄타기 34 택견 35 한산 보시놀이	37 일성록 38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2012		36 아리랑	
2013	12 개성 역사 유적 지구	39 김장 문화	39 난중일기 40 새마을 운동 기록물
2014	13 남한산성	41 농악 42 북한 아리랑 민요	

문화재청(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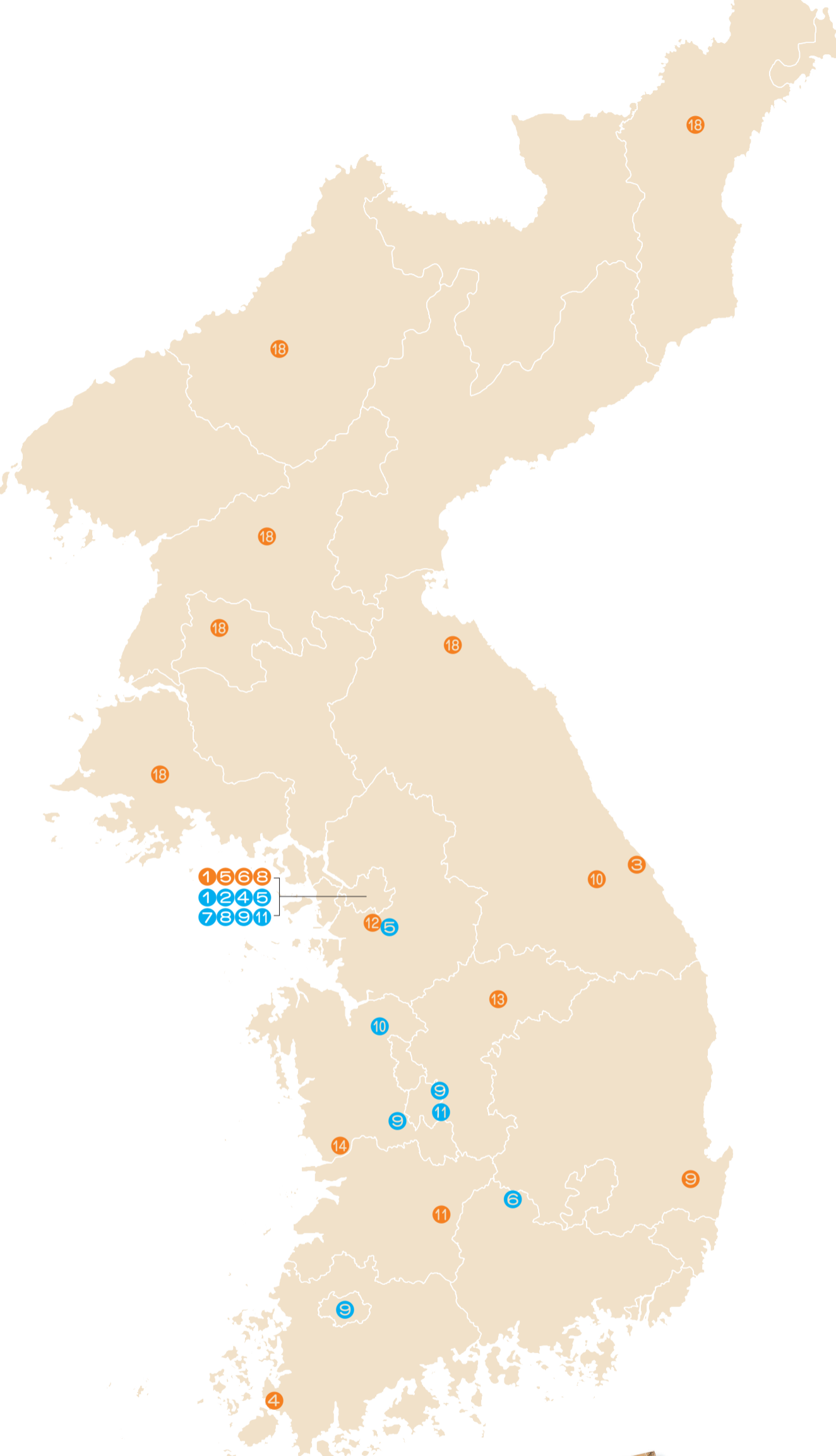
1 **중요 제례 및 중요 제례악**(2001년 등재, 중요대체문화유산)  
중요 제례와 중요 제례악은 중요유산에 이루어지는 제향 의식과 제사를 드릴 때 연주하는 가락, 노래, 춤을 말한다.



2 **판소리**(2003년 등재, 판소리 기능 보유자)  
판소리는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춰 창, 말, 몸짓을 섞어가며 구연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악이다.

우리나라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 현재까지 18건이 등재되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식이나 의례가 4건, 놀이가 4건, 노래가 4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택견, 한산 모시짜기, 김장 문화가 각각 1건씩 존재한다.

한국 인류 무형 문화유산과 세계 기록 유산의 위치



3 **강릉 단오제**(2005년 등재, 강릉 단오제위원회)  
단오 전후에 강원도 강릉 지방에서 행하는 마을굿이다. 풍년을 빌고 재앙을 쫓기 위해 서낭신에게 굿을 올리며 각종 민속놀이도 한다.



4 **강강술래**(2009년 등재, 강강술래보존위원회)  
정월 대보름날이나 팔월 한기위에 남부 지방에서 행하는 민속놀이로,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방방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5 **남사당놀이**(2009년 등재, 남사당놀이보존회)  
남사당놀이는 남사당패가 농촌을 돌며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기를 하는 놀이를 말한다.



6 **영산재**(2009년 등재, 영산재보존회)  
영산재는 죽은 사람을 위한 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년 등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제주 칠머리당에서 해녀들이 영등할머니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의식이다.



8 **처용무**(2009년 등재, 처용무보존회)  
처용무는 액운을 쫓기 위한 의식으로, 궁중 무용에서 차용됨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9 **가곡**(2010년 등재, 중요 무형 문화재 제30호)  
가곡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사에 곡을 붙여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 음악이다.



10 **대목장**(2010년 등재, 중요 무형 문화재 제4호)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전통적으로 목장, 목공, 목수라 한다. 또한 궁궐, 사찰, 가옥을 짓고 건축과 관계된 일을 대목(大木)이라 불렀고, 그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이라 한다.



11 **매사냥**(2010년 등재, 매사냥 기능 보유자)  
매사냥은 훈련된 매를 이용하여 평이나 작은 짐승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12 **줄타기**(2011년 등재, 중요 무형 문화재 제68호)  
줄타기나 줄꾼이 줄 위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보이는 놀이이다.



13 **택견**(2011년 등재, 중요 무형 문화재 제76호)  
유연한 동작으로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이다.



14 **한산 모시짜기**(2011년 등재, 중요 무형 문화재 제4호)  
충남 한산 지역에서 모시를 재로 삼아 직물을 짜는 일을 말한다.



15 **아리랑**(2012년 등재) 16 **북한 아리랑 민요**(2014년 등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남한에서는 정선과 진도 아리랑이 유명하고, 북한에서는 평양을 위시한 전역에 구전 아리랑이 존재한다.



17 **김장 문화**(2013년 등재)  
김장은 겨우내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또는 그렇게 담근 김치를 말한다.



18 **농악**(2014년 등재)  
집단 농사일이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한, 악기가 곁들여진 춤과 노래이다.

이아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주1: 지도 위의 번호는 유산의 전수지 또는 보존회 소재지이다.  
주2: 세계 유산 명칭 앞에 붙어있는 번호는 유산이 등재된 순서이고, 사진의 배열은 번호의 순서에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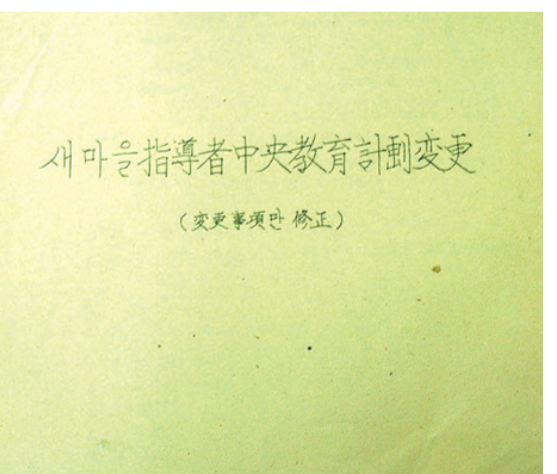
19 **일성록**  
2011년 지정, 국보 제153호,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에서 1910년(일제 4)까지 151년 동안 국정 운영 내용을 일기체로 정리한 국왕의 일기이다. 임금의 입장에서 패권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물이다.



20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2011년 지정, 대전시 국가기록원, 개령시 육군본부, 광주시 5·18 기념재단, 광주시 광주광역시청 소장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 시민 단체, 미국 정부 등에서 생산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기록물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기록물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실현된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21 **난중일기**  
2013년 지정, 국보 제76호, 아산시 현충사 소장  
난중일기는 이순신(1545~1598)이 임진왜란(1592~1598) 기간 중 군중에서 직접 쓴 친필 일기이다. 모두 8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시 작부대 이순신이 노랑해안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7년의 기간을 망라하여 기록하고 있다.



22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년 지정, 대전시 국가기록원, 서울시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장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대통령 연설문과 결재 문서로 사진, 영상 등 약 22,000여 건의 자료이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발전의 한 모델이자 민원 협력의 성공적 사례이다.

세계 기록 유산은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 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 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세계 기록 유산에는 책,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유산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은 대부분 책이고, 일기와 기록물도 일부 있다. 1997년 처음 2건이 등재된 이래 2년 간격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현재 11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 등재 건수는 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는 5위에 해당하여 기록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 준다. 이 기록물 가운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일성록, 난중일기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동의보감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 기록 유산물 가운데 조선왕조실록,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새마을 운동 기록물은 여러 장소에 분산 보존되어 있다. 그 소장처를 모두 합하면 16곳에 이른다. 직지심체요절은 고종 때 국외로 유출되어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23 **훈민정음**  
1997년 지정, 국보 제70호, 서울시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난 판각 원본이다. 제작 원리가 과학적이고, 배우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문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24 **조선왕조실록**  
1997년 지정, 국보 제151호,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선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 통치자의 정책과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5 **직지심체요절**  
2001년 지정,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고려 공인왕 2년(1372)에 백운화상이 석가모니의 직지인성경성삼불의 뜻을 그 중요한 대목만 뽑아 해설한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인쇄되었다. 1972년 유네스코 주최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되었다.



26 **승정원일기**  
2001년 지정, 국보 제303호,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승정원은 조선 시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다. 1823년부터 1910년까지 승정원에서 처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행정 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기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27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諸)경판**  
2007년 지정, 국보 제32호, 합천군 해인사 소장  
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킨다.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 시대에 간행되어 '고려대장경'이라고도 하며, 대장경 판수가 8만 여 개에 이르러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오탈자 하나 없이 고르고 정밀하다.



28 **동의보감**  
2009년 지정, 보물 제1085호, 서울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조의 명을 받아 어의 허준(1539~1615)이 집필하여 1610년(광종 3)에 완성하고 1613년에 간행한 의학 책이다. 일반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학'서이다.